

## 영화치료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김 정 숙\* · 김 수 진\*\*

---

### The Effect of Motion Picture Therapy Program on th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the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Kim, Jeong-Suk\* · Kim, Soo-Ji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Gwangju

---

####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psychiatric nursing intervention that helps the recovery, relapse prevention, and social readjustment of the hospitalized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by evaluating the effect of motion picture therapy program.

**Method:** The subjects were the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who were hospitalized in the H mental hospital situated in the H county. 40 patients participated (experimental group 20, control group 20), but 4 of the experimental group dropped out.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centage,  $\chi^2$ -test, Kolmogorov - Smirnov test, paired t-test and t-test using SPSS 12.0 version.

**Result:** Motion picture therapy program turned out to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the patient with chronic schizophrenia. Therefore motion picture therapy program will be used for the recovery, relapse prevention, and social readjustment of the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Key word:** schizophrenia,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problem solving, motion pictur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정신분열병은 사고, 정서, 지각, 행동, 대인관계 및 의욕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유병률이 0.4-0.7%로 보고되고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5). 일부환자는 호전되어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치료로 양성증상이 조절된 후에도 사회적, 직업적 장애를 보이며 주기적으로 증상이 재발한다(Han, Hong, Lee, Lee, & Lee, 2003). 이와 같이 질병이 만성화되면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와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고, 재발과 재입원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지며, 자아기능이 약화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Yang & Choi, 2000). 또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여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Lee et al., 2004), 특히 문제해결이 복잡하거나 과도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Lee, 2006).

최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목표가 예방과 정신사회재활치료를 통한 사회적 기능회복으로 전환되면서(Lim & Lee, 2001), 정신분

열병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고, 독립심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Kim, 2004). 정신사회재활치료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독립된 사회생활 기술을 향상시키고, 병의 위기동안 지지를 제공하며, 기능적 불구를 최소화하여 제한된 적응력을 보조함으로써 재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Min et al., 2006). 특히 예술치료는 약물치료와 개인정신치료와 더불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재활 능력 증진과 사회적 퇴행 예방 및 적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예술 창작활동, 즉 음악, 미술, 조각, 무용, 시 쓰기, 서예 및 영화 등을 통하여 내적 갈등을 표현하거나 해소함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얻는 치료이다(KNPA, 2005).

영화치료는 예술치료중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치료이며, 지능이 낮은 환자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사람들의 정서, 인지 및 행동적 측면과 관계하여 대안적 해결 방안을 개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영화는 무엇보다도 직접 경험 할 수 없는 것을 대리경험하도록 만들어 주고,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주며(KIFA, 2008), 영화의 스토리는 집단토론을 활성화시켜 치료자와 내담자들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고 증가시킨다(Yu, 2008). 또한 영화치료는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자존감 증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및 문제해결 장면을 통하여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 수단을 발견해 내도록 도와주며, 집단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킨다.

영화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owell, Newgent, & Lee, 2006), Frueh(1995)는 영화치료 후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퇴역군인의 자기관리 노출 체험치료 사례를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증 환자(Heston & Kottman, 1997), 중학생(Park, 2003),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인과 대학생(Kim, 2004) 및 일반인(Kim & Kim, 2006) 대상의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Yu(2008)의 연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간호중재로써 영화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병의 만성화로 인하여 재발과 재입원을 반복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영화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여,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회복과 재발 방지 및 사회 재적응을 돕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치료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영화치료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영화치료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영화치료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3. 연구가설

- 가설1.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2.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3.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 4. 용어의 정의

### 1) 만성정신분열병

만성정신분열병이란 정신분열병 발병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음성증상이 흔한 환자를 말한다(Lieberman, 1982). 본 연구에서는 DSM-IV의 진단기준에 의해 만성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고, H군의 H정신전문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eon(1974)이 변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3)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자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며 사람들로 하

여금 생산적으로 함께 일하고 효과적으로 함께 배우도록 허용해주는 기술이다(Lim, 1993). 본 연구에서는 Schien과 Guerney(1977)의 대인관계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Moon(1980)이 번안하고 Chun(1995)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이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 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 수단을 발견해 내거나 식별해 내는 인지적, 행동적 과정이며, 상황을 인지하는 주체의 변화 또는 통찰의 성립으로 새로운 반응양식을 나타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D'Zurilla & Nezu, 1982). 본 연구에서는 Heppner와 Peterson(1982)이 개발하고 Yoo(1993)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5) 영화치료프로그램

영화치료는 영화를 감상하고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지칭 하며 심리치료의 수단으로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치료적 기법으로서, 자기조력적 영화치료, 영화 만들기 치료 및 상호작용적 영화치료가 있다(Kim, 2005; KIFA, 2008). 본 연구에서는 Kim(2004), Yu와 KIFA(2008)의 영화치료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8회기의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화치료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H군에 위치한 H정신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 중에서 40명을 편의 표집하였으며,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을 임의 배정하였다. 전체 대상자 40명 중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환자를 제외시켜 최종 대상자는 총 36명(실험군 16명, 대조군 20명)이었다. 선정기준은 첫째, DSM-IV 기준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만성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한 남자 환자, 둘째, 영화와 집단상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셋째, 연구목적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넷째, 영화감상시간에 주의 집중이 가능한 자, 다섯째,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여섯째, 연구기간 중 약물 치료 외에 기타 다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자이었다.

### 3. 연구도구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eon(1974)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4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hronbach's  $\alpha$  값이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78이었다.

#### 2)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과 Guerney(1971)의 대인관계변화 척도를 Moon(1980)이 번안하고, Chun(1995)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

서, 점수 범위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un(1995)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값이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91이었다.

###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Heppner와 Peterson(1982)이 개발하고, Yoo(1993)가 보완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4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최저 34점에서 최고 17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유정수(1993)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값이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 4) 영화치료프로그램

영화치료프로그램은 Kim(2004), Yu와 KIFA(2008)의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 정신보건간호사 수간호사 1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기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는 '집단 구성원간의 이해 및 자아존중감 형성' 단계로서, 애니메이션 '강아지 똥'을 선정하여,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쓸모 없는 존재라고 여기던 강아지 똥이, 민들레의 꽃을 피우게 해주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필요 없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는 없다는 의미를 대상자들에게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회기는 '자기개방 및 자기이해' 단계로서, 정신분열병을 앓았던 주인공 존 내쉬의 일생을 그린 '뷰티풀 마인드'를 선정하여, 약물의 부작용 및 환각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3회기는 '자기 과거 회상 및

미래 상상하기' 단계로서, 이미지 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마흔 살 러스에게 어느날 8살의 자신과 70대의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영화 '키드'를 선정하여 자신의 유년기의 모습을 회상하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4회기는 '대인관계의 상대성 이해' 단계로서, 영화 '제 8요일'을 선정하여 가족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주인공 아리의 대인관계표를 분석한 후 대상자들의 대인관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서로 피드백을 하도록 하였다. 5회기는 '정서표현' 단계로서, 스스로가 싸이보그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영군이 주인공인 영화 '싸이보그지만 괜찮아'를 선정하여 자신의 내면정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6회기는 '의사소통 유형 파악하기' 단계로서, 영화 '마빈의 방'을 선정하여 등장인물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7회기는 '문제해결능력 향상' 단계로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행복을 찾아서'를 선정하여 주인공에게 고통과 불행이 연속되는 상황에서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8회기는 '목표세우기 및 마무리' 단계로서, 영화 '버킷 리스트'를 선정하여 대상자들이 퇴원 전·후 자신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10년 후의 자신의 명함을 만들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영화소개와 영화감상을 하고 난 후 워밍업 집중활동을 하였고, 영화 집중토론 시간에는 유인물 배부 및 강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응답 하였다. 또한 집단 구성원들끼리 경험을 나누는 토의 형식과 개별 발표 및 역할극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과 대인관계가 증진되도록 하였다. 매회 마무리 단계에서는 영화 O, X퀴즈풀이, 소감 나누기, 칭찬주인공 선정, 동

료평가를 하였으며, 프로그램 3,6,8회기에 평가결과에 따라 소정의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하였다. 그리고 각 회기 프로그램 과정동안 그날의 ‘칭찬 주인공’ 및 ‘영화 O, X퀴즈풀이’를 내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자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한국영상응용연구소에서 개최한 영화치료 워크샵과 집단상담에 참여하여 한국영상응용연구소로부터 영화치료강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2009년 1월 3일까지이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H정신전문병원 간호과 부서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 한 후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고, 두 병동을 방문하여 각 담당 의사와, 정신과 병동 수간호사의 협조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 각 다른 병동에서 선별하여 임의 배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와 보조진행자가 각 대상자를 만나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기간, 대상자의 역할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프로그램은 실험군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 8명씩 배정하고, 주 1회, 총 8회기 실시되었고, 1회 소요시간은 160분이었다. 단, 영화가 1시간이 넘을 경우, 치료자가 사전에 주요 장면을 편집하여 보여주었다. 실험군에게는 8회기 프로그램 종료 후 2주후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과 내용으로 실시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실험처치 없이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5.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변수의 정규

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 - Smirnov test를 시행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은  $\chi^2$ -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영화치료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설 검정은 paired t-test와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일 지역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자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을 본 연구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위한 외부 요인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 III. 연구 결과

#### 1. 동질성 검정

##### 1) 일반적 특성

영화치료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서, 연령은 ‘40대’가 47.2%, ‘20-30대’가 27.8%로 40대가 많았고, 교육정도는 ‘고졸이상’ 66.7%, ‘중졸이상’ 33.4%이었다. 결혼상태는 83.0%가 ‘미혼’이었으며, 질병 발생하기 전 직업을 가져 본적이 있는 대상자가 61.1%이었다. 종교는 75%가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출생순위는 ‘중간’ 47.2%, ‘막내’ 27.8%, ‘첫째’ 25%순이었고, 학령기까지의 성장지는 ‘시골’이 58.2%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서,

영화치료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Table 1) Homogeneity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6)

Characteristics			Exp. (n=16)	Con . (n=20)	Total (n=36)	$\chi^2$	<i>p</i>
			N(%)	N(%)	N(%)		
<b>sociodemographic-</b>	Age (yrs)	20~39	3(18.8)	9(45.0)	12(33.4)	3.399	.334
		40~49	9(56.3)	8(40.0)	17(47.2)		
		50~59	4(25.0)	3(15.0)	7(19.4)		
	Marital status	single	14(87.5)	16(80.0)	30(83.0)	0.900	.638
		married	2(12.5)	4(20.0)	6(17.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4(25.0)	8(40.0)	12(33.4)	2.520	.472
		high school	9(56.3)	6(30.0)	15(41.7)		
		over college	3(18.8)	6(30.0)	9(25.0)		
	Religion	yes	11(68.9)	16(80.0)	27(75.0)	1.741	.628
		no	5(31.3)	4(20.0)	9(25.0)		
Previous job	have	11(68.9)	11(55.0)	22(61.1)	8.438	.077	
	have not	5(31.3)	9(45.0)	14(38.8)			
Birth order	oldest	3(18.8)	6(30.0)	9(25.0)	0.622	.733	
	middle	8(50.0)	9(45.0)	17(47.2)			
	youngest	5(31.3)	5(25.0)	10(27.8)			
Growth area	big city	4(25.0)	4(20.0)	8(22.2)	3.214	.200	
	medium city	5(31.3)	2(10.0)	7(19.4)			
	country	7(43.8)	14(70.0)	21(58.2)			
<b>Disease related-</b>	Duration of illness (yrs)	1 - 9	7(43.8)	8(40.0)	15(41.7)	1.644	.896
		10 - 19	7(43.8)	11(55.0)	18(49.9)		
		20 - 30	2(12.6)	1(5.0)	3(8.4)		
	Duration of present hospitalization (yrs)	less than 1	5(31.3)	6(30.0)	11(30.6)	4.195	.380
		less than 2	7(43.8)	6(30.0)	13(36.1)		
		more than 3	4(25.0)	8(40.0)	12(33.4)		
	physical disease	yes	0(0.0)	0(0.0)	0(0.0)		
no		16(100)	20(100)	36(100.0)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전체 유병 기간은 ‘10-19년’이 49.9%로 가장 많았고, ‘1-9년’ 41.7%, ‘20-30년 이상’ 8.4% 순이었다. 현재 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은 ‘2년 미만’이 36.1%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30.6%, ‘3년 이상’ 33.4% 순이었으며,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장애는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영화치료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자아존중감( $t=-.189, p=.851$ ), 대인관계( $t=-1.102, p=.458$ ) 및 문제해결능력( $t=-.751, p=.278$ )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가설검정

1) 제 1 가설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27.00점에서 실시 후 31.12점으로 4.12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27.35점에서 실시 후 27.25점으로 .10점 감소하여,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215, p=.034$ )(Table 3).

2) 제 2 가설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을

(Table 2) Homogeneity in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6)

Dependent variables	Exp.(n=16)	Con.(n=20)	t	P
	M(SD)	M(SD)		
Self-esteem	27.00( 5.61)	27.35( 5.45)	-.189	.851
Interpersonal relations	108.13(21.01)	112.30(11.94)	-.751	.458
Problem solving abilities	73.38(17.23)	79.20(14.50)	-1.102	.278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 of the Self-esteem between Two Groups (N=36)

Variables	Group	Pre	Post	paired t		Difference	t	
		M(SD)	M(SD)	t	p	M(SD)	t	p
Self-esteem	Exp. (n=16)	27.00 (5.60)	31.12 (6.21)	-2.433	0.028	-4.12 (6.781)	2.215	.034
	Con. (n=20)	27.35 (5.45)	27.25 (4.49)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73.37점에서 실시 후 83.12점으로 9.75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79.20점에서 실시 후 78.20점으로 .92점 감소하여,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281, p<.001$ )(Table 4).

3) 제 3 가설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108.12점에서 실시 후 119.37점으로 11.25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112.30점에서 실험 후 평균 110.40점으로 1.90점 감소하였으나, 두 집단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441, p=.159$ )(Table 5).

IV. 논 의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은 급성 정신병적 증상이 해소되고 난 후에 의욕이 감소되고 사회적 관심이 없어지며 사회적 대인관계 기술의 결핍 및 무감동과 동기의 부족 같은 음성증상들이 나타난다(Lee, Cho, & Lee, 1999). 정신분열병 환자의 최근 5년 추적조사에 의하면 약 13%의 환자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과거 수차례 정신병적 악화가 있었으나 호전되어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양호한 회복’인

<Table 4> Comparison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 between Two Groups (N=36)

Variables	Group	Pre	Post	paired t		Difference	t	
		M(SD)	M(SD)	t	p	M(SD)	t	p
Interpersonal relations	Exp (n=16)	73.37 (17.23)	83.12 (21.09)	-2.850	.012	-9.75 (13.684)	-4.281	<.000
	Com (n=20)	79.20 (14.50)	78.20 (12.11)	.470	.643	.924 (3.390)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Table 5> Comparison of the Problem Solving Abilities between Two Groups (N=36)

Variables	Group	Pre	Post	paired t		Difference	t	
		M(SD)	M(SD)	t	p	M(SD)	t	p
Problem solving abilities	Exp (n=16)	108.12 (21.01)	119.37 (22.03)	-1.716	.107	-11.25 (26.220)	1.441	.159
	Com (n=20)	112.30 (11.94)	110.40 (15.29)	.592	.561	1.90 (14.345)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경우는 약 30%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치료에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신사회재활치료가 포함되어야만 전반적 기능 수준의 향상이 가능하다(Min et al., 2006).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을 위한 정신사회재활치료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집단활동요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영화는 대안적인 문제 해결책을 탐색하게 해주는 도구이다(Schulenberg, 2003). 즉, 영화보기는 놀이의 재미를 주는 동시에 고통을 치유 받는 승화의 과정이 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거나, 대인관계에서 불안이 높은 내담자들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다(KIFA, 2008). 본 연구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정신사회재활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방법으로서 영화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영화치료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정신사회재활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다음과 같다. Wie(2009)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전래놀이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7)의 연구에서는 독서요법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으며, Kim(2004)의 연구에서도 집단미술프로그램 실시 후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대상자가 다르나 영화치료 실시 후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로서, Park(2003)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상자료를 활용한 결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Kim과 Kim(2006)의 연구에서도 영화집

단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일반인의 자아실현점수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과정동안 각 회기별로 선택한 영화를 감상하고 난 후, 대상자들이 영화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토론하는 ‘영화 집단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영화 집단토론 시간에는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율적인 태도로 집단 활동을 경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표현과정이 서툴거나 실패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수용하며 격려하는 방식으로 자신감을 주었다. 그리고 단순히 정신과 병원에서 시간 보내기식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아닌,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 활용된 도구로 ‘노트북, 빔, 스크린, 스피커’, 그리고 다양하고 다소 고급화된 도구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Microsoft office powerpoint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폐쇄병동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회기에서 애니메이션 ‘강아지 똥’을 선택하여,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던 강아지 똥이 민들레의 꽃을 피우게 해주는 존재로서, 대상자들에게 존재에 대한 가치성과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강아지 똥’ 영화감상 후 대상자들의 소감을 살펴보면, A환자는 “아~아~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손을 한번 잡아 보고 싶네요! 아주 따뜻했어요. 나쁜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없어졌으면 해요!”라고 표현하였고, B환자는 “말 그대로 정말 코끝이 찡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이에요... 영화도 좋고, 병동에서 쓸데없이 침대에 보낸 시간이 아깝게 생각되었고,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네요!”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개 똥이 민들레 꽃을 피우게 하네요... 똥이 참 쓸모가 있네

요! 저도 지금은 병원에 있지만 쓸모가 있는 사람이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가슴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하찮은 강아지 똥이 쓸모가 있는 존재라는 것... 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요!” 등의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오랜 유병기간 동안 재발과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상자들에게 ‘강아지 똥’ 애니메이션은 숨겨진 자아를 깨내어 그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프로그램 중에 부적절한 의사소통기술로 인하여 자기주장 및 자기표현이 부족하고, 제한된 정서반응을 보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과 다른 영화치료만이 갖는 강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영화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통해 상처받은 그들의 내면에 심적 에너지를 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음성증상이 심한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영화치료는 필요한 간호중재라고 사료된다.

둘째, 영화치료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Yu(2008)의 연구에서도 영화치료 후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던 정신분열병 환자의 소극적인 행동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화되어 대인관계 향상과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Kim(2007)의 연구에서도 비디오 활용 집단독서요법이 남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관계점수를 유의하게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Nichols와 Schwartz(1998)의 연구에서도 영화치료 실시 후 지나치게 치료 동기가 낮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상

자들이 자기개방을 하여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영화치료는 집단으로 실시할 때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고(Forney, 2004), 대인관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기이해, 타인 인지, 공감적 이해,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기술’ 등의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Johnson, 1990). 그리고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집단은 약 8~10명의 대상자와 치료자, 보조치료자를 각 1명으로 구성하고 영화 집단 치료 시간은 매주 1회, 90~150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다(Sim, Kim, & Kim,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향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인관계의 4가지 요소를 포함시켰고, 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영화로서 ‘뷰티풀 마인드’를 선정하여 정신분열병의 질병 개념, 증상이해, 약물 부작용 및 환각증상에 대해 알아보았고, ‘타인 인지’를 돕기 위해서는 영화 ‘제 8요일’을 선정하여 대인관계 분석표를 이용하여 관계의 상대성을 알아 본 후, 긍정적·부정적 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감적 이해’를 위해서는 영화 ‘싸이보그지만 괜찮아’를 선정하여, 스스로가 싸이보그라고 생각하고 병의 인식이 부족한 영군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공감한다고 표현하였고, 주인공 영군이 싸이보그의 칠거지악을 표현하는 망상부분에서도 대상자들이 많은 공감을 하였다.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알아보기 위해 선택된 영화 ‘마빈의 방’을 감상하고, 영화 속 인물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였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치료자가 강의 한 후,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개조로 편성하여 역할연습을 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대상자들의 전체적인 소감을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영화를 통하여 맑고 밝은 세상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같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깨워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나는 영화치료 교육을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았다.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거짓없이 솔직하게 100%는 아니지만 자기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화치료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서로 친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긴다”, “많은 대화 토론 속에서 우리가 한 단계 나은 대화로 환우들과 친해지는 것 같다”, “뭔가 주입식 교육보다는 환우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말하는 것이 속을 시원하게 했다.” 등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영화 집단 토론시간을 이용하여 대상자들간의 상호 교류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동료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강화와 프로그램 실시 후 대상자들이 얻게 된 성취감 및 향상된 자아존중감이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셋째, 영화치료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환자의 문제해결능력 점수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Suh와 Lee(2000)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3개월간 매주 2회씩 실시하여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고, Jung(2002)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에게 총 18회로 구성된 문제해결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화 ‘행복을 찾아서’를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영화감상 후 집중적으로 문제해결방법

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주인공의 고통과 불행이 연속되는 장면은 따로 편집하여 보여주었으며, 그 후 문제해결 방법들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역할연습을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전체적인 소감을 살펴보면, “오늘 시간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병동에서 있다 보면 잘 안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가드너가 처음엔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도 집 나가 버리고...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잠 잘 때도 없어서 화장실에서 자고, 매일 줄 서서 기다리고... 그렇지만 나중에 재벌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저도... 언젠가 퇴원해서 열심히 일 해보고 싶습니다. 희망이 생기네요!”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과 소감은 긍정적이었으나, 문제해결능력이 기각된 이유를 살펴보면, 대상자가 폐쇄병동에 입원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실질적인 문제를 체험하기에는 환경적인 제약이 따랐고, 일상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던 회기는 짧았던 점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인지장애와 현실력 부족을 겪고 있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문제의 해결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으로 사료된다.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할 경우, 스스로에게 강한 성취감과 존재의식을 갖고, 재활에 강한 동기가 생기며 재발방지 및 삶의 질을 증진하여, 사회재적응에 효과적이다(Jung, 2002). 따라서 문제해결 증진을 위하여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고 추후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 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실제 문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중

적이며 장기적인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영화치료 프로그램은 정신분열증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사회 재적응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영화치료는 앞으로 정신간호사의 독자적인 중재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정신간호실무영역을 확장 시키는 독자적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입원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한 대상자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재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입원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영화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 및 사회 재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신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영화치료프로그램은 입원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어 대인관계 증진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을 촉진시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 및 사회 재적응에 도움이 되고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성별, 연령별, 집단인원별, 유병기간별, 질병군 등으로 나누어 효과의 차이를 비교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화치료프로그램 실시 전 대상자들의 주관과 영화 취향을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셋째, 영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와 측정변수를 달리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영화치료 3 종류인 영화 만들기 치료, 상호작용적 영화 치료 및 자기조력적 영화치료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Chun, S. K. (1995). *The social skills training for social adjustment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D'Zurilla, T. J., & Nezu, A. M. (1982). Social problem solving in adults. In P. C. Kendall (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Vol. 1, p.202-274). New York:Academic Press.
- Forney, D. (2004). Introduction to entertainment media use.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108*(1), 1-11.
- Frueh, B. C. (1995). Self-administered exposure therapy by a Vietnam veteran with PTS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12), 1831-1832.
- Han, D. H., Hong, Y. M., Lee, B. Y., Lee, H. B., & Lee, S. H. (2003). The Therapeutic effect of gardening for the social rehabilitation of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iatry, 8*(1), 11-17.
- Hepner, P. P., & Peterso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1), 66-75. <http://dx.doi.org/10.1037/0022-0167.29.1.66>
- Heston, M. L., & Kottman, T. (1997). Movies

- as metaphors: a counseling intervention.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36(2), 92-99.
- Jung, S. Y.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integrat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the mentally disordered in the community: a 6 months follow-up study.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14, 127-163.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jib*, 11(1), 107-130.
- Johnson, D. W. (1990). *Reaching out : Interpersonal effectiveness and self actualization*, 4th edi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Kim, M. S. (2004). *Effect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ssertiveness and hope in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 Kim, S. S. (2004).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cinematherapy program foe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Kim, J. H., & Kim, M, K. (2006). The effects of a cinema group therapy program on self-actualization and spiritual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1), 183-200.
- Kim, H. J.(2007).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utilizing video on the self-esteem and human relations of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 KIFA. (2008). *Emotion picture-magic healing cinema work book*. Seoul: KIFA.
-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5). *Text of neuropsychiatry* (2nd ed.). Seoul: JMCI.
- Lieberman, R. P. (1982). Assessment of social skills. *Schizophrenia Bulletin*, 8(1), 62-84.
- Lee, S. J., Cho, W. T., & Lee, C. S. (1999). Effects of grande rehabilitation programs for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8(2), 369-383.
- Lee, O. H. (2006). *A study on the developing a program of problem solving training and its skill for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aegu University, Gyeongbuk.
- Lee, H. J., Sin, Y. J., Yang, Y. J., Jun, S. H., Lee, J. M., & Han, S. S. (2004). The Effect of the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on th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and the negative symptoms of schizophrenic patients. *Clinical Nursing Research*, 10(1), 160-170.
- Lim, S. H., & Lee, K. H. (2001). The effects of a behavior modification program on self-care and percep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1), 87-97.
- Moon, S. M.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 195-204.
- Min, S. K., Kang, H. J., Koh, K. B., Ki, S. W., Kim, K. H., Kim, D. H., et al. (2006). *Modern psychiatry* (5th. ed.). Seoul: Ilchokak.
- Nichols, M. P., & Schwartz, R. C. (1998).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4th ed.). Needham heights, MA, US: Allyn &

- Bacon.
- Park, S. M. (2003). *The effect on the formation of middle student's ego-identity through group counseling using mass media materi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 Powell, M. L., Newgent, R. A., & Lee, S. M. (2006). Group cinematherapy: using metaphor to enhance adolescent self-esteem. *The Arts in Psychotherapy, 33*(3), 247-25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h, J. H., & Lee, M. H. (2000). The effectiveness of a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developed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1), 89-99.
- Sim, Y. S., Kim, J. H., & Kim, E. H. (2006). *Cinema therapy* (Birgit, W.). Seoul: Eulyoo publishing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Schlein, S., & Guernsey, B. G.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 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francisco: Jossey-Bass.
- Schulenberg, S. E. (2003). *Psychotherapy and movies: on using film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3*(1), 35-48.
- Wie, H. (2009).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plays on the emotion, relationship, and self-esteem of schizophrenic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1), 1-10.
- Yang, S., & Choi, Y. S. (2000) Effects of training grooming skills to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on improving satisfaction on self-appeara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3), 358-370.
- Yu, I. C. (2008). *The effect of movie therapy and group counseling on reducing anxiety and human relations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t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Yoo, J. S. (1993). *Development of a problem solving training model and its effectiveness -the comparison of effectiveness between cognitive-behavioral an cognitive-affective-behavioral problem solving trai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Chonnam.

